

작년 급성심장정지 환자 3만명... 생존율 ↑

환자 70% 이상은 심근경색 등 질병 때문

생존율 8.7%로 11년전보다 4배 가량 올라

지난해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3만여명에 달한 가운데 생존율은 8.7%로 11년 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은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사례 의무기록 조사결과를 22일 공동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건수는 2만9262건으로 11년 전인 2006년(1만9480건)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환자 건수는 2015년 3만771건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추세에 있다.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은 8.7%, 뇌기능 회복률은 5.1%로 11년 전인 2006년(생존율 2.3%, 뇌기능 회복률 0.6%) 대비 각각 3.8배, 8.5배 증가했다.

그러나 11년간 생존율의 지역간 차이는 2006년 4.2%포인트에서 지난해 8.6%포인트로 두배 벌어졌다. 뇌기능 회복률에서도 1.6%포인트에서 5.9%포인트로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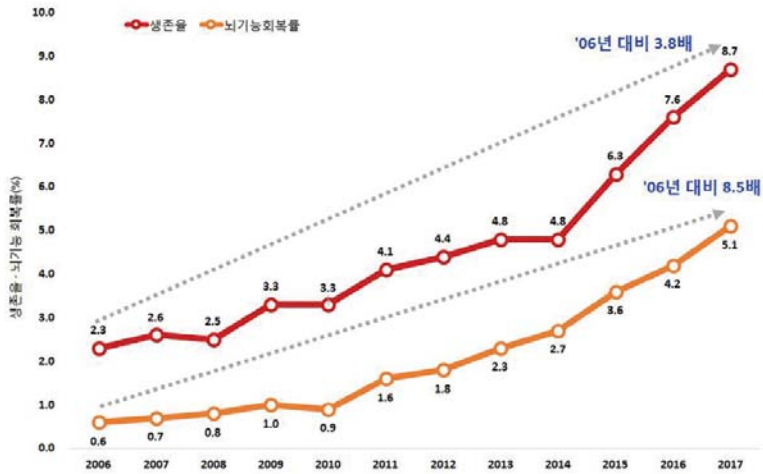
심폐소생술의 일반인 시행률은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에는 9년 전에 비해 약 11배 증가(2008년 1.9%→지난해 21.0%)했고, 지역 간 시행률 격차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2008년 2.5%포인트→지난해 26.9%포인트).

환자 중 남자 비율은 64~65%로, 여자보다 약 2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하는 주원인은 '질병'에 의한 것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질병 중에는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등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심장정지가 95% 이상이었다.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으로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 간 격차를 극복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세텍 국제회의실에서 '제7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심폐소생술 국민운동본부 하정열 이사장은 "환자 발견시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도록 하고 심장정지가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

하므로, 우리 모두가 심폐소생술에 관심을 갖고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국내 최초 세슘프리 '혈액X선조사기' 출시

JW바이오사이언스 세슘-137사용 안해

방사능 위험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신개념 혈액방사선조사기가 국내 최초로 출시됐다. JW홀딩스의 손자회사인 JW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영상진단장비 기업인 히타치에서 개발한 혈액 X선 조사기 '상그레이(SANGRAY)'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내에서 방사능 위험물질 '세슘-137'을 사용하지 않는 혈액방사선조사기가 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그레이는 수혈용 혈액백에 X선을 쬐어 수혈 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인 '수혈 관련 이식편대숙주병'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료기기다.

수혈 관련 이식편대숙주병은 수혈된 림프구가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정상 조직을 공격하는 질환으로 치사율이 매우 높다. 이 질환은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수혈 전 혈액백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 림프구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예방해야 한다.

상그레이는 상시 감마선을 방출하는 '세슘-137' 내장 기기와 달리 작동 중에만 고전압을 통해 X선을 유도시키는 방식으로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 방사능 위험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인한 방사능 물질 유출 위험이 없고, 방사능 폐기물 처리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JW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수혈 관련 이식편대숙주병은 치사율이 높은 심각한 질병으로 혈액방사선 조사만이 유일한 예방책"이라며 "국내의 여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만큼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검증된 학술자료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응급·중환자실 CT촬영에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따라 21개 항목
복부CT의 경우 선별진단 위한 의심단계서도 적용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의한 폐렴 의심돼도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에 따라 CT(전산화단층영상진단), 호흡기바이러스 검사 등 응급실과 중환자실 기준비용 예외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중환자실과 관련된 기준비용을 건강보험 적용 급여로 확대하기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2~28일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준비용이란 처치·시술 횟수, 치료재료 사용개수, 시술·재료의 적응증(질환, 증상, 대상 환자 및 부위 등) 기준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나 치료재료 등을 뜻한다.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항목은 응급·중환자실 관련 기준비용이 21

개 항목이다. 비용 대비 치료효과성이나 대체가능성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예비급여(재평가 전제로 필수급여보다 높은 본인부담률 적용)를 적용해 환자 부담을 최소화한다.

우선 복부질환 확진 단계에서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복부 CT의 경우 선별진단을 위한 의심단계에서도 급여를 적용한다. 37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호흡기 바이러스감사는 중환자실 신생아 7200여명 외에 성인과 소아 중에서도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으로 의심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환자실 폐렴환자는 27만명 정도다.

뇌 수술, 심장 수술 등 중증 질환자에 수술용 치료 재료의 이용제한 사항 10개 항목의 기준을 완화해 의료인이 수술실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토록 한다. 기관지 삽입용 튜브나 심장기능검사 시 사용하는 카테터 등의 제한 기준이 폐지된다.

잡수병 등에 필수적인 고압산소요법의 적응증도 당뇨병 족부궤양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압산소챔버 등 시설·장비의 활용도도 높인다.

중환자 심장기능 측정·감시, 인공성대 등 8항목의 사용 횟수와 적응증이 확대되도록 한다. /뉴시스

심장박동 이상 19만8000명
환자 5명중 1명은 50대

심장박동 이상 환자가 최근 6년 사이 매년 6.48%씩 증가해 지난해 19만9000여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르면 '심장박동의 이상(R00)'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 인원은 지난해 19만8855명으로 집계됐다. 6년 전인 2012년 14만5259명에서 연평균 6.48%씩 증가한 수치다.

여성은 9만362명에서 12만3564명으로 연평균 6.46%, 남성은 5만4897명에서 7만5291명으로 연평균 6.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300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487명으로 남성 294명 보다 1.7배 가량 많았다.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50대가 3만9442명(19.8%)가 가장 많았고 60대 3만4781명(17.5%), 40대 3만3189명(16.7%)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심장내과 이한철 교수는 "이전과 달리 서구형 식단과 잦은 음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하면서 부정맥 질환 또한 증가하는 추세"라며 "많은 형태의 심장박동 이상은 심근경색이나 심부전 등 심혈관 질환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해당 연령층에서 유병률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한 예방 방법은 없지만 심장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습관 교정 등 생활양식 개선이 필요하다. /뉴시스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



제260회 고창군의의회 제2차 정례회

- 기간 : 2018. 11. 19. ~ 12. 19. (31일간)
- 장소 : 본회의장, 상임·특별위원회실
- 안건

- 2018년 행정사무감사
- 2019년 시책보고
- 2019년 예산안 심의
- 군정질문·답변